

## 남성향 웹소설에서 나타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양상 - 노력·친밀성·우정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김아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대상 및 방법
4.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재현 비교 분석
  - 4-1. 노동과 성취: '노력'에서 '탈각'으로
  - 4-2. 친밀성: '자원'에서 '기회'로
  - 4-3. 동성사회적 관계: '브로맨스'에서 '네트워크'로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성향 웹소설에 재현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다각적 양상을 포착하고, 새롭게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주체의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0년의 시차를 두고 연재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닌 주인공의 영웅서사인 〈템빨〉과 〈하남자의 탐 공략법〉을 ① 노동과 성취에 대한 인식, ② 이성애적 친밀성의 위치, ③ 동성사회적 유대의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템빨〉의 주인공은 '노력-성취-친밀성'의 인과율을 신뢰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의 상승을 꾀하는 '공모적-주변적 남성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친밀성은 성취의 보상으로, 남

---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성 간 유대는 확고한 이성애적 안전망 위에서의 깊은 관계성(브로맨스)으로 재현된다. 반면, 〈하남자〉의 주인공은 성취의 불확실성에 기반한 위험 회피와 효율성을 중시하며 헤게모니적 경쟁 자체로부터 이탈하는 ‘변형된 주변화된 남성성’의 양상을 띤다. 이는 금융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교차된 모습으로, 친밀성의 유예와 전략적·네트워크적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남성성 경계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상을 ‘금융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교차하여 젠더 차별의 방식을 변형시킨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변화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적 권위가 약화되는 환경 속에서 청년 남성들이 냉소적 이탈과 위험 관리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변형된 남성성, 남성향 웹소설, 노동과 성취, 친밀성, 우정)

## 1. 서론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가부장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균열,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개인화의 심화 등을 거치며, 젊은 남성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확보하지 못한 남성들의 다양한 양상이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재현되었고, 온라인상에서도 당사자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외의 다양한 남성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sup>1)</sup> 그러나 그간

1) 김엘리,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제36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20, 145-147쪽; 권김현영, 「근대 전환기 한국의 남성성」, 『한국 남성을 분석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더 폭력적이고 과격한 남성성을 향해 있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얻지 못한 남성들이 사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잘못된 경로로서 분노와 혐오를 표출하면, 사회는 그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그들을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존재로 정의하는 악순환 속에서, 다양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논의는 점차 주변화되어왔다. 현대 청년 남성들을 ‘해로운 남성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괴물이자 타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야말로 남성성을 납작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이 취하는 다양한 생애 감각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며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변화해오는 정치적 경계성이자 정체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남성성의 근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바깥에 존재하는 남성 정체성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년 남성들이 어떻게 남성성의 조건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남성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남성들이 주로 소비하는 남성향 웹소설을 중심으로, 10년의 시차를 두고 연재된 두 작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노동과 성취, 이성애적 친밀성, 동성사회적 유대라는 세 가지 축에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재현 방식을 검토한다.

---

한다」, 교양인, 2017, 100-102쪽.

## 2. 이론적 배경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당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규범으로서의 남성성으로, 다양한 남성성 중 우위를 점하는 지배적이고 이상적인 남성성이다.<sup>2)</sup>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활용한 바와 같이, 남성성과 여성성은 고정된 성 역할이 아니라 이성 및 동성 간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구성되는 정체성이다. 이러한 성별 정체성 개념은 사회역사적 맥락, 구체적으로는 당대에 요청되는 젠더 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sup>3)</sup>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 축으로는 ① 노동과 성취의 연결 방식, ② 이성애적 친밀성의 위치, ③ 동성사회적 유대의 양상을 들 수 있다. 이 세 축은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내용과 관계가 재편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이상 역시 변화해왔다.<sup>4)</sup> <표 1>과 같이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기,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남성들 간의 연대(형제애)’를 기반으로 생산적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노동-성취), 그 결과로 남성들에게 의지하는 국가와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성취-친밀성)이 이상화되었다. 이러한 남성성의 이상 속에서는 동성사회적 유대를 기반으로 노동-성취-친밀성이 하나의 굳건한 인과적 사슬로 묶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동성사회적 유대보다 개인 간의 경쟁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이상적 남성상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는 자수성가한 남성으로 변했으며, 친밀성은 자수성가의 결과에 따라 오는 보상으로 재현된다. 이때 전통적 남성성에서 당연시되었던 노동-성

2) 레이원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124쪽.

3) Yang, Y., “What’s Hegemonic about Hegemonic Masculinity? Legitimation and Beyond”, *Sociological Theory* Vol.38, No.4, 2020. pp.318-333.

4) 에바 일루즈,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역, 돌베개, 2013, 143쪽.

취·친밀성의 연결고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 나아가 1990년대 소비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이상적 남성성은 생산성의 이미지보다는 전시(display)적 이미지인 근육, 강한 외양, 무뚝뚝한 태도 등으로 한정되어갔다.<sup>5)</sup> 한편 친밀성의 구조 변동 과정에서 섹슈얼리티와 결혼 제도의 결합이 해체되면서, 지배적 남성성에서 그려지는 친밀성의 이미지는 ‘가정’보다는 ‘섹슈얼리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sup>6)</sup>.

| 구분                  | 내용                                             |
|---------------------|------------------------------------------------|
| 근대 산업자본주의 / 전통적 남성성 | 사회에의 기여(이타심), 보통 남성들 간의 연대(형제애),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
| 신자유주의 / 경쟁적 남성성     | 경쟁체제에서의 승리(이기심), 도달 불가능한 존재(개인성), 성취의 결과로서의 여성 |
| 소비자본주의 / 장식적 남성성    | 생산성과 무관, 태도와 외양 중심의 남성성, 섹슈얼리티 대상으로서 여성        |

〈표 1〉 미국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sup>7)</sup>

한국 역시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남성성 규범이 변화해왔다. 전후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가 이상화한 남성성은 국가 경제 성장과 세대 간 부양 의무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보통 남성, 다시 말해 사회에 기여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생계부양자 남성이었다.<sup>8)</sup> 즉, 압축적 근대화 시기 한국

5) 수전 팔루디, 『스티프트: 배신당한 남자들』, 손희정 역, Arte(북이십일 아르테), 2024, 61-104쪽.

6) 에바 일루즈, 앞의 책, 90-96쪽.

7) 출처: 수전 팔루디, 앞의 책; 에바 일루즈, 앞의 책, 재구성

8)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295쪽.

의 지배적 남성성 이미지 역시 동성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노동-성취-친밀성의 인과성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제 상황이 도래하여 남성들의 직업 안정성은 점차 흔들리고, 여성들의 자율성 강화 등에 입각하여 결혼이 유예되거나 거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sup>9)</sup> 보통 남성들에게 노동-성취-친밀성의 인과성은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어갔다. 이와 동시에 경쟁에서의 ‘승자’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쟁적 남성성이 이상화되어갔다. 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를 구시대의 규범이 소멸하고 새로운 규범으로 완벽히 대체되는 단선적 진화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처럼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성,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에 특화된 남성성, 그리고 소비자본주의의 장식적 남성성이 한 시대 안에서 중층적으로 공존하고 경합한다.<sup>10)</sup>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계가 공고화되면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남성 집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헤게모니적 위치에 놓이는 남성들이 확대되었다. 코넬이 말한 바와 같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경계를 만드는 힘으로, 이상적 남성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헤게모니가 구축된다. 이때 비헤게모니적 영역의 남성성을 코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종속적 남성성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추방된 요소들의 저장소라고 설명되는데, ‘여성적인 것’, ‘동성애적인 것’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로 공모적 남성성이 있다. 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부장제의 ‘배당금’을 누리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는

9) 홍찬숙,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 세상, 2022, 68-74쪽.

10) 위의 책, 62-90쪽.

이들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주변화된 남성성 혹은 소외된 남성성이 있다. 이는 인종·계급·국적 등으로 인해 헤게모니적 남성성 영역에서 배제되는 남성들을 의미한다.<sup>11)</sup>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 약한 남성성은 아니다. 오히려 남성성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이나 종속적 남성성을 더 강하게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sup>12)</sup>. 이 과정에서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프로젝트를 강화하는데 공모하는 경향도 있다. 한편 주변화된 남성성이 종속적 남성성과 교차되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성은 서로 교차되며 다양한 남성성 유형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를 망라하고 진행되는 다양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연구는 대체로 주변화된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의 교차점에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테면 흑실드가 연구한 백인 하층 계급 남성들은 ‘계급’으로 인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배제된 주변화된 남성성을 가진 이들로,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했던 남성적 ‘자부심’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을 혐오하고 소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는 다시금 남성성 경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 이득으로서의 ‘자부심’ 감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변화된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sup>13)</sup> 메노스피어의 ‘분노’의 원천에 대한 연구<sup>14)</sup>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11) 레이원 코넬, 앞의 책, 125-130쪽.

12) 정희진,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49쪽.

주변화된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의 교차는 결국 ‘주변화(소외)’되는 속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함으로써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계급, 인종 등으로 인해 주변화된 남성들이 ‘열등함’이라는 정체성을 잠깐이나마 지우는 가장 쉬운 전략은 여성 혐오를 통해 위계를 재정립하고, 동성사회적 유대를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남성으로서의 자부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13) 알리 러셀 흑실드, 『도둑맞은 자부심: 상실감, 수치심 그리고 새로운 우파의 탄생』, 이

해된다. 다양한 이유로 헤게모니에서 배제된 이들이 여성혐오를 강력하게 수행함으로써, 새롭게 남성성 경계를 구축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수호하는 공모적 성격을 띤다. 한국의 '식민지 남성성' 역시 피식민지 남성이라는 국적 기반의 주변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여성을 자원화하거나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을 통해 남성성 경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배당금을 확보하려는 공모적 남성성의 위치성을 동시에 갖는 사례이다.<sup>15)</sup> 2000년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등장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초 '루저 남성성' 논의는 주변화된 남성성의 자조와 해학을 중심으로, 공모적인 양상과 동시에 항의적인 양상도 보이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sup>16)</sup> 그러나 최근의 '일베', '멤코'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기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상에 권위를 부여하는 역설을 보인다는 점, 남성성 경계를 유지하고 위계 서열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변화된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의 교집합적 성격이 더 강화된 것으로 논의된다.<sup>17)</sup>

그러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주변화된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의 교차에 한정되지 않으며, 남성성 특성들의 다양한 교차와 융합을 포괄하는

종민 역, 어크로스, 2025.

14) 제임스 S. 코플랜드,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상처 입은 남성과 극우의 탄생』, 송은혜 역, 바다출판사, 2025.

15) 정희진, 앞의 책, 56-66쪽.

16) 안상욱,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7) 김수아·홍중윤,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블랙넷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제18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6, 60-99쪽; 김학준, 『보통 일베들의 시대: '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월의봄, 2022; 김수아, 「2030세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성 규범: 반 페미니즘 정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9권 4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159-195쪽.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sup>18)</sup> 나아가 김엘리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지배/피지배, 중심/주변이라는 이원적 구도를 넘어, 남성성과 이질적 요소들이 포섭과 협상을 통해 융합되는 ‘하이브리드 남성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sup>19)</sup> 즉,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성 특성 간의 교차뿐 아니라 이질적 요소들 간의 융합까지 아우르며, 그 안에 다양한 남성성‘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연구는 단일한 유형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남성성들의 양상을 포착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을 활용하되, 남성성 특성들의 다층적 조합과 협상, 융합의 지점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활용한 세 가지 축—노동과 성취, 이성애적 친밀성, 동성사회적 유대—을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재현을 분석하는 범주로 전환하여 해당 축에서의 ‘주변성’을 남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하려 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남성성이 약속한 ‘노동-성취-친밀성’의 인과구조가 붕괴한 조건 속에서, 남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남성성을 재구성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 3. 연구대상 및 방법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영역은 2000년부터 점차 확장되어 ‘루저’, ‘잉여’,

18) 또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내에는 남성성의 특성들이 교차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코넬이 주목한 ‘항의적 남성성’은 종속적 남성성이거나 공모적 남성성과 교차하지 않으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항의하는 주변화된 남성성 고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레이원 코넬, 앞의 책, 170쪽.

19) 김엘리, 앞의 글, 145-147쪽.

‘찌질함’ 등의 코드로 가시화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 청년 남성들이 주로 향유하는 문화에서 적극적으로 재현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남성향 웹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웹소설은 성별 소비 경향이 뚜렷한 콘텐츠 분야<sup>20)</sup>이기에, 남성향 웹소설은 남성들을 주요 독자로 타겟팅하고 남성들이 원하는 서사를 재현하는 매체이다. 또한 웹소설은 무한 경쟁 시스템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의 결핍과 욕망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시장성을 획득하는 콘텐츠이며, 거의 매일 연재된다는 점에서 청년 남성 독자들이 남성성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콘텐츠 분야이다. 따라서 남성향 웹소설 내 서사 구조와 인물상은 동시대 청년 남성들이 가지는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문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향 웹소설은 대체로 당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사명들을 수행하는 현대적 ‘영웅서사’를 그리기에, 영웅서사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현대 남성성 규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재현을 분석하기 위해 두 작품을 선정하였다. 구체적 분석 대상은 2014년 연재를 시작한 박새날의 〈템빨〉과 2024년 연재를 시작한 꾸찌꾸찌의 〈하남자의 탐 공략법〉(이하 〈하남자〉)이다. 〈템빨〉은 카카오페이지 기준 누적 조회수 12억뷰, 1회당 조회수가 약 58만 회에 달하는 히트작으로, 〈달빛조각사〉 이후 침체기에 있던 게임판타지 장르의 흥행을 다시 견인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피아에서 최초 연재를 시작한 〈하남자〉 역시 연재 첫 해인 2024년에 문피아

20) 성별 소비 경향의 차이를 받아들여 웹툰 및 웹소설 플랫폼에서도 자체적으로 ‘남성 인기’ 카테고리나 ‘여성 인기’ 카테고리를 분리시켜놓는 실정이다. ‘여성 인기’ 카테고리에는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포함되고, ‘남성 인기’ 카테고리에는 현대판타지, 판타지, 무협 장르가 포함된다.

플랫폼에서 유료 전환 구매수가 가장 높은 작품이었으며,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극도로 쉽고 수월하게 답을 등반하는 장르 유형(‘답탈작물’)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두 작품은 연재 시기에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한 남성향 판타지 웹소설<sup>21)</sup>인 동시에,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주인공의 성장 서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남성향 웹소설은 본질적으로 ‘영웅서사’의 성격을 띠며, 주인공은 대체로 당대의 영웅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 서사의 구조상 서사 초반에 약한 주인공이 등장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성격적 측면에서는 모난 데 없는 호감형 캐릭터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2)</sup> 그러나 <템빨>과 <하남자>의 주인공의 초반 설정은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성격 역시 비호감에 가까운, 이른바 ‘찌질한 남자’이다. 즉 두 작품은 남성향 웹소설의 영웅서사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유형의 주인공이 인기를 끈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작품을 중심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주변부에 위치한 주인공들이 약 10년의 시차를 두고 어떻게 다르게 재현되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양상들을 포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두 작품의 서사 구조와 인물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텍스트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현대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남성성의 주요 기동인 ① 노동과 성취에 대한 인식, ② 이성애적 친밀성의 위치, ③ 동성사회적 유

21) <템빨>은 게임 판타지 장르로, 가상현실 게임이 보편화된 세계관에서 게임 속 성장을 통해 게임과 현실에서 동시에 지배력을 얻는 서사이다. <하남자>는 게임 판타지적 장치(자신의 성장 수준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창,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성과를 제공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가 적용된 현대 판타지 소설이다. 플랫폼 문피아를 기준으로 <템빨>은 94.1%가 남성 독자이며, <하남자>는 89.6%가 남성 독자인 것으로 확인된다.(검색일 2026년 04월 14일)

22) 북마녀, 『억대 연봉 부르는 웹소설 작가수업 :북마녀의 베스트 작가 실전 트레이닝』, 허들링북스, 2021, 172-173쪽.

대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분석의 범주로 설정하고, 이 범주들이 두 서사 내에서 재현되는지를 교차 분석한다.

#### 4.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재현 비교 분석

##### 4-1. 노동과 성취: ‘노력’에서 ‘딸깍’으로

두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과 성취가 연결되는 방식에 있다. 두 소설 모두 게임 판타지 장르의 특징인 ‘목표’, ‘규칙’, ‘피드백 시스템’<sup>23)</sup> 등의 서사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 장르의 주인공들은 게임적 서사 장치를 통해 확고한 목표를 부여받고, 규칙화된 성장 과정을 거쳐,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으며,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런 장치는 어떤 결과를 얻는지 불확실한 현실의 반대향으로, 노력과 성취의 인과율을 가시화하며,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반복 노동에 몰입하게 만든다. 이른바 “행복한 노가다”는 즉각적으로 성장과 쾌락으로 전환되며 노동을 통해 안정감과 소속감, 영광을 획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는 점<sup>24)</sup>에서, 노동과 성취의 인과에 대한 전통적 남성성의 믿음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두 작품은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닌 주인공의 서사라는 점에서, 게임판타지라는 장르적 배경 하에 노동과 성취의 연결을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3) 제인 맥고니걸, 『누구나 게임을 한다』, 김고명 역, 알에이치코리아, 2012, 42쪽; 이용희, 『#판타지 #게임 #역사』, 요다, 2021, 31-35쪽.

24) 문은혜, 「게임판타지 웹소설의 장르관습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200쪽.

〈템빨〉의 주인공 ‘신영우(그리드)’는 서사 초반에는 어떠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도 도달하지 못한 존재이다. 게임판타지 세계관에선 게임을 통해 현실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획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sup>25)</sup> 이에 ‘신영우’는 현실에서의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게임에 몰두한다. 이 지점에서 사회에의 기여를 강조하는 전통적 남성성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그는 게임적 재능조차 부족하여 시간과 노력을 게임에 쏟아부었음에도 평균적인 수준의 레벨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경쟁적 남성성 확보와도 멀어진다. 마지막으로 집에 머물며 게임만 하기에 외양 관리를 하지 않고, 열등감에 기반하여 여성 및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가진 주인공은 장식적 남성성 역시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설정들 때문에 독자는 주인공을 “찌질”하다고 평가한다.<sup>26)</sup> 이러한 주인공 묘사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열등향으로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주체를 그리는 방식에 가깝다.<sup>27)</sup>

이러한 위치성을 가졌음에도 주인공은 “스스로 못났음을 알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끈기 빼면 시체(〈템빨〉 1권 15화)”로 정체화한다. 즉, 노력만 있으면 성취가 따라올 것이며, 결국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달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성장과 성취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열망의 결과, 주인공은 게임 내 ‘히든피스’<sup>28)</sup>를 얻게 되며 이를

25) 이용희, 앞의 책, 71쪽.

26) 대표적인 독자 반응으로는 카카오페이지 〈템빨〉 3권 12화 베스트 댓글(좋아요 605 답글 68)로 “내 살다살다 주인공 이리 찌질인거 참보네 ㅋㅋㅋ”가 있다. (검색일 2025년 12월 03일)

27) 이론적 배경에서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서 다양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중층적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한국에서 재현되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역시 경합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들의 총체적 열등향으로 취급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8) 이용희, 앞의 책, 80쪽.

통해 유일무이한 대장장이 직업을 가지게 된다. 주인공이 얻은 히든피스의 자체적 특성 역시 ‘반복 노동을 통한 성취’이다. 게임 내에서 다른 대장장이 직업을 가진 플레이어는 ‘자동제작 버튼’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주인공은 몇 시간에 걸쳐 직접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경우, 그는 다른 대장장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최상급 아이템을 제작하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기반으로 반복 노동을 통해 아이템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실에서의 부를 확보하며, 게임 내에서 무력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성취를 확보해나간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노력-성취라는 인과 구도를 충실히 따른다. 그리고 다양한 성취의 결과로 ‘신영우’는 서로 다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순차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성취가 누적될수록 그는 게임 내 경쟁체제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하고 유능한 인물이 된다(경쟁적 남성성). 동시에, 그는 신체와 인상 역시 ‘남성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장식적 남성성의 획득을 보여준다. 경쟁적 남성성과 장식적 남성성을 확보한 뒤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아끼는 이타적 존재로까지 묘사된다(전통적 남성성). 이처럼 주인공 ‘신영우’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노력을 통해 ‘남자다움’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요소를 확보하게 된다(〈표 2〉 참고). 정리하자면 〈템빨〉의 주인공은 총체적으로 주변화된 위치에 있었음에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주요 요소인 노력과 성취의 인과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는 공모적 성격을 보이며, 서사 역시 열등적 존재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의 상승 구도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이상

---

게임판타지 세계관에서 ‘히든피스’란 유일한 직업, 퀘스트, 아이템 등이 대표적으로, 현실의 게임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버그’이지만, 게임판타지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특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인공의 빠른 성장과 성취를 정당화함으로써, 독자의 대리만족 환상을 충족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을 강화하는 양상이다.

|     |                                                                                                                                                                                                                  |
|-----|------------------------------------------------------------------------------------------------------------------------------------------------------------------------------------------------------------------|
| 이타심 | (초기) 희생을 비웃는 이기적 태도 : “내가 왜 생면부지 남을 도와? 이득 없는 일에 끼어들 생각따위 없다. 어린 시절 누구라도 한번쯤은 동경하게 되어 있는 슈퍼 히어로들조차도 나는 오히려 혐오했었다. ‘왜 내가 다쳐 가면서까지 남을 구하려는 거지?’(2권 1화)”                                                            |
|     | (후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 태도 :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본래라면 호구 취급 받기 딱 좋은 길이다. 도리, 인정, 선행 등의 개념은 구시대적 관념이 된 지 오래였으니까. 현대 사회는 자신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비웃어왔다. (중략) 하지만 평생에 한 번쯤은 손해를 감수해도 되지 않을까?(57권 1화)” |
| 경쟁력 | (초기) 재능 부족 : “그리드는 게임 재능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직업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시간낭비를 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있었다.(10권 1화)”                                                                                                                          |
|     | (후기) 노력을 통한 한계 극복 및 경쟁력 획득 : “부족한 재능을 핑계 삼아 패배자로 살아왔던 과거가 떠오른 까닭이었다. ‘지는 건 이제 그만하자.’ 부족한 재능, 노력으로 극복해오지 않았던가?(18권 12화)”<br>“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는다. 그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영광을 차지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드가 그랬다.(62권 1화)”               |
| 외양  | (초기) 부족한 외양에 대한 콤플렉스 : “내가 애인이 없는 건 다 아빠랑 엄마 탓이에요! 두분이 나를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낳아만 줬으면 26년 내 내 여자를 끊임없이 사귄 수 있었을텐데! 이런 빌어먹을! 두분이 나를 못생기게 낳는 바람에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주잖아요!(2권 8화)”                                                |
|     | (후기) 남성적 매력을 갖춘 외양 묘사 : “굳이 과거에 국한해서 비교하지 말고 한국 남성 평균 외모와 비교해봐도 훌륭한 편에 속했다. 높은 티준과 보기 좋게 발달한 광대가 서구적인 매력을 발산했고 키다란 키와 넓은 어깨가 남성다움을 부각시켰다. 특히 길게 찢어진 눈매는 여성들에게 섹시하게 비쳤다(20권 14화)”                                 |

〈표 2〉 〈템빨〉 주인공의 남성성 변화 양상<sup>29)</sup>

29) 출처. 박새날, 〈템빨〉, 카카오페이지.

10년 후 연재된 〈하남자〉의 주인공 ‘봉주혁’ 역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존재도 아니며,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인물이다. 다만, ‘봉주혁’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안전지향형 인물이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성장’은 그에게 어렵고 위험하며 불안정한 상황이며, 그렇기에 성장을 위해 노동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비합리적인 일이다. 따라서 ‘봉주혁’은 성장이나 경쟁 승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 묘사는 ‘봉주혁’이 남성들 사이의 지배력 경쟁을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하려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경쟁 질서로부터 거리를 둔 채 주변화된 남성성의 위치에 머무르려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박지희는 주인공을 경쟁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성장을 통해 탈출하려는 대신 다른 살아가기 방식을 모색하는 주체로 분석하는데,<sup>30)</sup>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거나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주변화된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성을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중략) 하지만 봉주혁에겐 아니다. 플레이어가 되어 탑 안에 들어가는 꿈은 꾸지도 않았다. 조금 힘들어도, 그냥 그냥 평범하게, 큰 욕심 안부리고 살길 원했다. 봉주혁은 하남자이자 소시민. 불의를 봐도 웬만하면 피한다. 위험한 상황도 최대한 만들지 않는다 (〈하남자〉 1화).

주목받는 건 싫거든요. 주목받으면 스트레스받고, 스트레스받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싶고.(〈하남자〉 7화)

그럼에도 〈하남자〉는 탑 등반물<sup>31)</sup>로 전형적인 성장서사이다. 성장을

30) 박지희, 「한국 웹소설에 나타나는 하이포주체 연구」, 『국제어문』 제104호, 국제어문학회, 2025, 35-42쪽.

31) 현실에 갑작스럽게 생겨난 ‘탑’을 오르며 각 층마다 미션을 완수하고 강해지는 현대 판

원하지 않는 주인공의 성장서사를 그리기 위한 장치로 〈하남자〉는 ‘소환’이라는 히든피스를 활용한다. 주인공은 소환사 스킬을 통해 강력한 소환인을 얻게 되고, 소환인은 주인공을 대신해 탑을 등반하며 그 성과를 소환사인 주인공에게 바친다. 이처럼 〈하남자〉에서 성장의 핵심은 주인공의 노력이 아니라, 성과를 대신 산출할 존재를 확보하고 운용하는데 있다. 주인공이 해야 할 모든 노력은 자신의 소환인에게 위임되며, 주인공의 노력 자체가 요구되지도 않는다.<sup>32)</sup> 이는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딸깍”이라는 표현을 통해 손쉽고 간편한 해결로 상징된다.<sup>33)</sup>

뭐든 쉬워야 재미가 있다. 탑 등반뿐만 아니라,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른바 **딸깍 공략**. 공략이 어려웠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터.(〈하남자〉 201화, 강조는 필자)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기통제를 통한 성장은 일종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은 성장이 물질적·감정적 성취를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될수록 노동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성취(임금, 영광 등)를 얻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은 더 이상 자율성을 향한 경로라기보다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종속의 영역으로 비춰지게 된다<sup>34)</sup>. 이러한 인식에 기반했을 때 ‘봉주혁’

타지 장르의 하위 장르이다.

32) 〈하남자〉 2화에서 경쟁을 피하고 직접적인 노력을 멀리하는 ‘비접함은 소환사(주인공)의 미덕’이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33) “딸깍”이라는 의성어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쉽고 편하게 수행됨을 의미한다. 이는 〈템빨〉에서 묘사된 “자동 제작 버튼”이라는 대장장이들의 스킬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템빨〉의 “자동 제작 버튼”은 쉬운 방법임과 동시에 더 나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요소였다. 〈템빨〉에서 더 나은 성과는 결국 ‘반복 노가다’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템빨〉과 〈하남자〉에서 노동의 위상은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려는 의지, 뭐든 쉽게 수행하려는 의지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그러나 주인공의 비노동은 필경사 바틀비의 수동적 저항으로서의 비노동과 같지는 않다. '봉주혁'은 스스로 노동하지 않을 뿐, 자신의 노동이 위임된 소환인들에 의해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은 근면한 노동 주체라기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금융투자자적 주체에 가깝다. 이러한 인물상은 자본주의 내에서 궁극적 효율성의 판타지<sup>35)</sup>를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을 동시대 남성성 규범의 재구성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에도 강조했듯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성성'의 규범과 이미지 역시 변화한다. '자유'는 남성 영웅서사에서 시련의 결과로 획득되는 보상으로, 남성성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어왔다.<sup>36)</sup> 그런데 금융자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유'의 이미지는 노동보다는 금융 투자와 더 밀접히 연관된다.<sup>37)</sup> 구체적으로 노동의 영역은 언

34) 김명수, 「급진적 파이어 투자자의 탄생 : 한국 파이어 운동의 자산전략과 도덕 경제」, 『경제와사회』 제144호, 비판사회학회, 2024, 315쪽.

35) 조형래, 「게임 판타지 웹소설의 정동적 메커니즘 :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본 후기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재구성」, 『동서인문학』 제69권, 인문과학연구소, 2025, 169-170쪽.

조형래가 자본주의 내 궁극적 효율성의 판타지를 포착한 웹소설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하 〈나혼렙〉)이었다. 〈나혼렙〉 이후 현대 판타지 장르에서 '자동사냥' 모티프는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자동사냥'에 대한 주인공의 감상과 태도는 작품별로 차이가 보인다. 대표적으로 〈나혼렙〉 주인공은 자동사냥에만 성과를 맡겼다면 자신의 사냥 감각이 떨어질거라 예상하고, 중요한 사냥은 본인이 수행하며, 노력없는 성취에 대해 냉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남자〉의 주인공은 스스로의 사냥 감각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력없는 성취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거나 냉소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하남자〉의 주인공은 조형래가 분석한 궁극적 효율성의 판타지를 더욱 강력하게 내면화한 주체이다.

36)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함춘성 역, 비즈앤비즈, 2013, 45-66쪽.

을 수 있는 성취가 적어지고 불안정해지면서, 여성적 이미지로 재배치되는 반면, 자원을 운용하고 배치하는 금융적 영역에 '자유'의 이미지와 동시에 남성적 이미지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sup>38)</sup> 이러한 맥락에서 '봉주혁'이 보여주는 태도 및 〈하남자〉 서사의 인기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기통제와 성장에 기반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 〈하남자〉에서 보여지는 남성성은 금융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교차된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쉬이 낙관하기보다는, 투입된 노력 대비 성취의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냉소적 이해에 기반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지 않는 주변화된 남성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냉소적이고 위험관리적인 주변화된 남성성이 기존의 경쟁적 남성성의 헤게모니를 뒤집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봉주혁'이라는 인물상이 이상적 남성으로서의 우월성이나 지배력을 보여주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봉주혁'은 탑을 모두 등반하여 세계를 구원하는 등 거대한 성취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쉽고 평이한 선택을 지향하며, 여성과의 관계에서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등 '남자다움'의 기표를 확보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봉주혁'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면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거리를 두는 주변화된 남성성의 양상을 보인다.

#### 4-2. 친밀성: '자원'에서 '기회'로

서사 내 노동과 성취의 연결 방식이 달라지면서, 성취 전후로 이성애 친

37) 김명수, 앞의 글, 315-339쪽.

38) Salzinger, L., "Re-marking men: Masculinity as a terrain of the neoliberal economy", *Critical Historical Studies* Vol.3, No.1, 2016. pp.1-25.

밀성이 재현되는 방식 역시 변화해왔다. 〈템빨〉의 초반 서사는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이들이 여성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고스란히 재현한다.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영역에서 여성이란 자신의 부족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대조군<sup>39)</sup>이자, 지배력 확보를 위한 비하 및 혐오의 대상인 동시에, 이성애적 남성성을 확보하기 위한 욕망의 대상이다.<sup>40)</sup> 그렇기에 〈템빨〉의 초반에 등장하는 첫사랑 ‘아영’은 주인공의 부족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대조군이었으며, 퀘스트를 함께 한 ‘유페미나’는 주인공이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하고 혐오하는 대상으로 재현된다(아래 인용구 참고). 또한 서사 초반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캐릭터는 주인공에 의해 성적 대상화된다. 이는 남성성 경계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변화된 남성성을 가진 이들이 수행하는 유구한 공모 전략과 맞닿아있다.

나는 너같이 여우같은 계집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생각 따위 없다. (중략) 내가 얼굴 반반한 계집들의 음침한 속을 모르고 있을 것 같다? 나를 홀려서 내가 승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의도인가 본데, 그만 저급한 수작 이 아저씨한테 안 통한다!((〈템빨〉 2권 16화)

그러나 주인공이 노력과 성취를 통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함에 따라, 여성 캐릭터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한 재현 방식 역시 변화한다. 주인공과 관계 맺는 모든 여성 캐릭터는 처음에는 주인공보다 높은 권력과 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성장하며 여성 캐릭터와의 힘의 관계가 역전된 후, 여성 캐릭터들은 주인공의 남성성과 성취를 확인하고 가시화하는 장치로서 로맨스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템빨〉

39) 안상욱, 앞의 글, 65쪽.

40) 정희진, 앞의 책, 49-61쪽.

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노동-성취-친밀성’의 인과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노력에 의한 성취가 확보되었을 때 그 인과적 사슬에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친밀성이 재현되는 서사 구조를 가진다.

이때 여성 캐릭터는 한편으로는 보호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이미지로,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는 조력자라는 이미지로 재현된다. ‘보호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는 남성성에서 배제된 특성<sup>41)</sup>으로 여성을 약자화하는 방식이라면,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는 남성성 유지를 위해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이미지는 남성성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여성성 규범의 요소이다. 대표적으로 근대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남성들은 공적 노동을 담당하여 사회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을 평가 절하하여 ‘약자화’하는 동시에, 남성의 생산력 확보를 위한 사적 영역 내에서 여성의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42)</sup> 한편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의 역할은 공/사 영역 모두에서 남성을 조력하는 것으로 변화한다.<sup>43)</sup> 경쟁적 남성성은 끊임없이 성장함으로써 경쟁에서 승자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은 중단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조건에서 남성에게 이성애적 친밀성은 성취의 끝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최종 보상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성

41) 남성성은 남자다움의 특징에서 배제된 것을 ‘여성화’하며, 그렇게 ‘여성성’의 내용이 마련된다. ‘약함’이라는 특징 역시 남자다움에는 절대 포함되었선 안 되는 특징이다. 그렇기에 남성 영웅서사에서 주인공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선 안 된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주인공이 약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게일 캐리거, 『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여성 영웅 서사의 세계』, 송경아 역, 원더박스, 2025, 9-10쪽.

42) 실비아 페데리치, 『켈리번과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황성원·김민철 역, 갈무리, 2011.

43) 엄혜진, 「여성의 자기계발, 소명의 고안과 여성성의 잔여화」,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6, 215-265쪽.

장 과정에서 획득되는 중간 성과물이자 자원에 가깝다. 따라서 남성 주체에게 친밀성의 대상인 여성은 그의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 하며, 남성 주체의 지배력 유지와 다음 단계의 성공을 위해 현실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이상화되는 것이다.<sup>44)</sup> 이처럼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당대 사회역사적 맥락 하에서 남성과의 위계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립하고 정당화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요청한다.

이러한 경향은 〈템빨〉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 〈템빨〉은 약 2천 화, 책으로는 약 98권에 달하는 긴 성장 서사이다. 이에 서사에서 주인공과 여성 캐릭터와의 관계는 긴 성장 여정의 중간 국면마다 주인공의 성취를 확인하는 보상으로 반복적으로 배치된다. 그 결과 〈템빨〉에서는 주인공이 다수의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렘<sup>45)</sup>(일부다처제) 서사가 전개된다. 이때 〈템빨〉의 히로인들은 주인공의 성장에 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장과 지배력을 유지·확장하는 자원으로 존재한다.<sup>46)</sup> 이런 서사 속에서 친밀성은 더 이상 낭만적인 영역이 아니라, 남성 주체가 당연히 도

44) 이는 남성향 웹소설을 읽는 남성 독자의 욕망과도 맞닿아 있다. 끝없는 성장과 빠른 이런 극복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에서, 성장의 속도를 늦추거나 주인공의 전진을 방해하는 여성 캐릭터는 삭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이는 이른바 ‘히전죽(히로인이 되기 전에 죽이자)’과 같은 독자 경향으로 나타난다. 송가윤, 「신무협 웹소설의 남성향/여성향 혼종적 서사 구조에 대한 독자 반응 경험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42-46쪽.

45) 하렘이란 한 명의 남성을 중심으로 여러 여성이 함께 호감을 갖는 상황을 뜻한다. 대체로 하렘물에서 주인공과 연애편계를 맺는 여성 인물은 남성이 차지한 트로피이다. 김예니, 「역하렘물과 미러링 전략의 의미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13-14쪽.

46) 게임 세계 내 첫 번째 히로인인 ‘아이린’은 주인공이 게임 내 권력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 히로인부터는 주인공의 무력 집단의 성장에 기여한다. 현실 세계에서의 히로인들 또한 주인공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달해야 할 성과이자 성장 과정에서 확보되는 하나의 자원에 가깝다.

〈하남자〉의 경우, 서사 초반에 등장하는 여성은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묘사된다(아래 인용구 참고). 이 지점에서 〈템빨〉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는 주인공의 부족함을 들키게 만드는 존재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봉주혁’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향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을 상대로 지배력을 과시하고자 하지도 않기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혐오하지는 않는다.

‘여자가... 눈웃음?’ 이진 예상 못했다. 주혁에겐 여자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수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하남자〉 7화).

서사 중반부터 ‘봉주혁’은 소환인들을 통해 누구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탑을 등반하는 성과를 내며, 서사 후반에는 결국 세계를 구하고 막대한 자산과 전 세계적 영광까지 확보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취 이후에도, 그리고 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소환인이 있음에도<sup>47)</sup> ‘봉주혁’은 여전히 여성과 관계 맺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사 내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주인공의 성취를 확인하는 트로피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친밀성은 성공과 성취의 자동적 보상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하남자〉는 성취가 친밀성으로 이어지는 〈템빨〉의 서사 구조와 분명하게 갈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남성들 사이의 약속, 즉 노동이 성취로, 성취가 다시 친밀성으로 이어진다는 연결 구조가 더 이상 자

47) 〈하남자〉 서사는 남성 주인공과 여성 인물들이 직접적인 연애 관계를 맺지는 않으나, 여성 인물들이 남성 주인공을 향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장면은 다수 등장한다. 즉, 반쪽짜리 하렘 서사가 전개된다. 이 지점에서 〈하남자〉 서사는 남성 독자들에게 노력 없는 성취만으로도 여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남성 주인공의 ‘선택’(연애대상 선택, 로맨스 시작 여부의 선택 등)이 된다.

명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봉주혁’은 노동이 반드시 성취로 이어지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취 역시 친밀성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인용구는 주인공이 탑을 성공적으로 등반하고,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어들인 뒤에 연애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봉주혁’에게 이성과의 연애는 공적 성공 이외에도 다른 많은 자원, 이를테면 여성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 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봉주혁’의 “여자 면역 체계”는 서사 중반 이후에도 “최하위 수준(〈하남자〉 175화)”에 머물고 있다.

누구는 연애 안하고 싶은 줄 아나. 다만 눈이 너무 높아졌고, 여자와 말해 보려면 특유의 하남자 근성이 나와서 버벅대기만 하고.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하남자〉 162화).

실제로 친밀성의 구조변동 이후,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성들은 공적 성공 이외에도 친밀성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다른 매력적 요소들을 확보하여야 했으며, 연애 과정에서도 상대를 위한 별도의 ‘사랑 노동’이 요구된다.<sup>48)</sup> 그리고 사랑 노동은 외주화되거나 자동화(‘딸깍’)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사랑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관계의 불안정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sup>49)</sup> 그렇기에 친밀성은 가장 예측불가

48)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권오현 역, 이학사, 2014, 363-366쪽; 박형신·정수남, 『로맨스 이그니마: 로맨스의 형성과 사랑 관행의 변화』, 한울, 2024, 267-272쪽.

49)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B. 게른스하임,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권기돈·강수영 역, 새물결, 2002; 지그문트 바우만, 『사랑하지 않을 권리 리퀴드 러브: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권태우·조형준 역, 새물결, 2013.

능하고 불확실한 영역 중 하나가 된다. 〈하남자〉의 주인공은 위험한 건 회피하고, 불안정한 것에는 도전하지 않는 안전지향형 인간이다. 이런 인물 상에게 연애-시장경쟁체계에서 수많은 선택지와 경쟁하며, 모호한 기준 속에서 자신의 ‘매력’을 가꿔나가는 것<sup>50)</sup>은 비합리적이며 위험한 일이다. 그렇기에 ‘봉주혁’에게는 ‘사랑’을 회피하는 것은 합리적 행위가 된다. 따라서 ‘봉주혁’은 여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도 않는다. 〈하남자〉에서 여성은 반드시 획득해야 할 성취의 보상이라기보다, 언젠가 친밀성을 맺어야 한다는 ‘기회’의 형태로만 남는다.<sup>51)</sup>

모태솔로로 등선하는 건 좀... 미련이 확 생긴다. (중략) 총각 등선은 아니  
잖아. (〈하남자〉 316화)

그러나 친밀성이 서사 내에서 유예된다고 해서, 여성이 더 이상 대상화되거나 타자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남자〉에서 여성은 주인공이 실제로 관계를 맺는 존재라기보다, 남성들 간의 대화와 농담의 소재로서 대상화된다.<sup>52)</sup> 이러한 양상은 코플런드가 지적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여성 대상화 맥락과 유사하다. 여성들이 로맨스 서사를 중심으로

50) 예바 일루즈, 앞의 책, 2013.

51) 이러한 경향은 〈템빨〉보다 친밀성을 훨씬 더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 낭만화하는 것이다. 즉, 사랑이 더욱 이상화되고 낭만화되었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고,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기 전까지는 사랑을 위한 헌신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낭만화의 역설로서 친밀성의 유예 현상은 일루즈의 논의와 유사하다(일루즈, 앞의 책, 2013). 또한 친밀성을 거부하기보다는 유예하고 회피하는 경향은 최근 친밀성에 대한 청년 남성들의 이해(안희제, 『증명과 변명: 죽음을 계획한 어느 청년 남성이 남기는 질문들』, 다다서재, 2024.)와도 유사하다.

52) 여성 소환인들의 가슴 크기를 비교하는 주인공과 남성 소환인들의 대화가 대표적이다.

친밀한 공적 영역을 구축하듯, 남성들 역시 서로를 하나로 엮기 위한 ‘소재’로 여성 대상화 서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커뮤니티 안에 머물게끔 유도한다.<sup>53)</sup> 즉, 〈하남자〉에서의 여성 재현은 주변화된 남성성을 가진 이들이 남성성의 경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타자’로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변화된 남성성이 곧 성차별주의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김엘리의 지적<sup>54)</sup>과도 연결된다.

정리하자면, 〈템빨〉에서 여성은 혐오의 대상에서 성장의 자원으로 이동하며 대상화되는 한편 〈하남자〉에서는 여성이 리스크의 대상이자, 유예된 기회로서 대상화된다. 이처럼 대상화의 양상은 상이하지만, 〈템빨〉과 〈하남자〉에서 모두 여성은 남성성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배제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템빨〉의 여성 대상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신자유주의에서 기반한 성장 담론인 반면, 〈하남자〉의 여성 대상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금융자본주의적 위험 관리 담론이다. 이 지점에서 〈하남자〉의 여성 대상화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직접적 공모라기보다, 달라진 생존 조건 및 이성애 관계의 조건 속에서 남성성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변형된 공모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4-3. 동성사회적 관계 : ‘브로맨스’에서 ‘네트워크’로

남성들의 우정은 이성애가 전제되며, 이성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립적 타자로서의 동성애가 필요한 동시에, 이를 억압할 필요가 있다.<sup>55)</sup> 즉,

53) 코플런드, 앞의 책, 78쪽.

54) 김엘리, 앞의 글, 148쪽.

55) 백문임, 「브로맨스 vs ‘형제’ 로맨스 : 포스트 밀레니엄 남성은 친밀성을 꿈꾸는가, 『그런 남성은 없다』, 오월의봄, 2017, 245쪽.

남성 간 우정은 이성애 성립 가능성과 동성애 성립 불가능을 동시에 전제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두 전제 중 하나가 취약해진다.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이들은 스스로의 이성애적 친밀성 성립 가능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한다. 이성애적 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간의 친밀한 관계는 동성애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우정의 다른 한 축인 동성애 억압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종속적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남성성의 경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두 작품 모두에서 확인되나, 동성애 혐오 이후 동성사회적 유대를 어떻게 재구축하는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템빨〉의 초반, 주인공은 이성애자 남성으로서의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로 재현된다. 이러한 위치 속에서 그는 게임 속 ‘아저씨’들이 보이는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동성애 혐오를 표현한다(아래 인용문 참고). 앞서 언급했듯 서사 초반에 주인공은 여성 캐릭터를 대상화하거나 혐오하는 인물이고, 남성 캐릭터와는 동성애적 혐오를 표출하며 거리를 보이는 인물이었기에, 누구와도 우정어린 연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얼굴에 홍조를 띤 채 그윽한 눈빛을 보내오는 스미스. (중략) 이 양반,  
홀아비 냄새가 진동한다 싶더니 독신으로 지낸 지 오래됐나보다. 많이 외로운 상태에서 나와 호감도가 최대가 되자 게이가 되어버렸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게이였을수도. 설마 하면서도 오만 정이 떨어진다. (〈템빨〉 1권 19화)

그러나 주인공의 성장 이후에는 확고한 이성애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에, 주인공과 남성 캐릭터와의 관계가 동성애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낮아

진다. 그 결과 (남성)멘토와의 관계, (남성)라이벌과의 경쟁 및 연대 서사가 매우 강하고 다각적으로 묘사된다. 영웅서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멘토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템빨〉에도 많이 등장한다. 이들 중 특히 멘토 ‘브라함’과 라이벌 ‘크라우젤’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남성 간 우정을 넘어서는 매우 긴밀하고 애정 어린 유대 관계로 재현되며, ‘브로맨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묘사가 등장한다. 이를테면 ‘브라함’은 주인공에게 “이성 관계였다면, 결혼을 전제로 삼은 연애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호감도(〈템빨〉 20권 9화)”를 보이며, 이후에는 게임 내 인물 중 가장 먼저 주인공에게 ‘유대감’<sup>56)</sup>을 보이는 존재이다. 크라우젤 역시 라이벌이자 동료로 서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존재이자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며, 서사 내에서 두 남성 캐릭터의 묘사 자체가 “여성들에게 묘한 자극(〈템빨〉 18권 3화)”을 주는 정도의 우정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브로맨스적 재현은 남성 캐릭터들이 이성애자임을 전제하며, 서로간의 성적 욕망이 절대로 전제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표현되는 친밀성의 영역이다.

브라함은 망설였다. “나는 약해졌다. 네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 나는 네게 짐이며, 독이다. ... 이런 나라도 괜찮은가?”

그리드가 빛을 품었다. “당신이니까 괜찮은 거야.”(〈템빨〉 44권 15화)

네놈도 참 여기저기 꼬리를 치고 다니는구나. 무신에게는 또 언제 관심을 얻었던 게냐? 네놈은 참 지조없는 놈이다. (중략) 네 곁에는 내가 있다 (〈템빨〉 48권 22화).

캐리거는 젠더적 성향이 반영된 영웅서사를 분석하여, ‘남성 영웅서사’의 주요 줄거리와 ‘여성 영웅서사’의 주요 줄거리를 비교한다. 이때 남성/

56) 〈템빨〉에서 ‘유대감’은 호감도의 최대치를 넘을 경우 얻게 되는 관계성이다. 〈템빨〉 69권 4화에서 브라함과 주인공의 유대 레벨은 최대치에 도달했다.

여성 영웅서사는 주인공의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다. 남성 영웅서사는 주로 주인공이 홀로 적과의 사투를 통해 영광과 명예를 얻는 서사인 반면 여성 영웅서사는 많은 동반자 및 조력자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승리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sup>57)</sup> 이런 비교 관계에서 <템빨>의 초기 서사, 즉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성장하는 서사는 일반적인 남성 영웅서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헤게모니적 남성성 위치에 도달했을 때 <템빨>의 서사에는 여성 영웅 서사적 측면(동료와의 긴밀한 연대)이 추가된다. 다만, 이러한 남성 간 연대는 주인공이 이미 남성 영웅서사를 종결했기에, 다시 말해 주변의 그 누구보다 월등히 강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이는 남성들 간의 우정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확보한 이들에게만 허용되는 감정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결국 <템빨>의 서사구조는 성취의 결과로서 동성사회적 연대를 배치함으로써, 동성사회적 연대와 결합된 노력-성취-친밀성의 인과성이라는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상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공모적 성격을 띤다.

반대로 <하남자>는 캐리거가 ‘여성 영웅서사’라고 말한 관계형 영웅서사와 유사하다. 앞서 설명했듯 주인공은 스스로 성장하기보다 소환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시련을 극복한다. 그렇기에 두 서사를 비교해본다면 <템빨>보다는 <하남자>의 남성 간 우정과 연대가 더 돈독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 지향을 멈추고, 위험 회피를 위해 이성애적 친밀성 관계를 주변화한 주인공은 남성적임을 확보할 이성애적 안전망이 사라진 존재이다. 그렇기에 <하남자>에서 재현되는 주인공과 남성 캐릭터 간의 관계는 동성애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남자>에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른 웹소설에서

57) 게일 캐리거, 앞의 책, 7-11쪽.

등장한 브로맨스적 장면을 패러디하며 조롱하거나, 남성 간 우정 묘사를 꺼리는 등 동성애 혐오를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이는 종속적 남성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성의 경계를 강화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인공과 남성 캐릭터 간의 깊은 정서적 교감에 대한 묘사는 소거된다.

이게 바로 뜨거운 전우애. ... 아니, 애(愛)는 빠자. 잘못하면 이상한 분위기  
기로 흘러갈라. 아무튼 뜨거운 전우의 우정!(<하남자> 38화)  
(소환인의 죽음 이후) 다음번엔 절대 혼자 나가지 마요. 나 미치는 꼴 보  
고 싶어서 그래요?<sup>58)</sup>(<하남자> 167화)

주인공이 없으면 세계에 소환될 수 없는 소환인들과, 소환인들이 없으면 탑을 오를 수 없는 주인공은 ‘시스템’이라는 구조에 의한 전략적 협력관계인 동시에, ‘소환’이라는 주인공의 능력에 의존하는 철저한 위계관계로 재현된다. 특히 ‘시스템’에 의해 매개되는 동성사회적 관계성은 코플런드<sup>59)</sup>가 지적한 현대 남성들의 친밀한 공적 영역과도 부분적으로 맞닿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의 친밀한 공적 영역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된다.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플랫폼’은 남성들을 이어주는 매체인 동시에, 남성 간의 진정한 우정보다는 플랫폼 자체의 트래픽 유지를 위해 자극적 이슈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끔 유도한다. 이에 플랫폼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청년 남성들은 깊은 속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자기계발이나 여성 혐오 등 남성성 유지와 관련된, 부정적 감정에 기반한 이야기만을 반복하게 된다. 이에 남성 간 우정이 계속해서 유

58) 여기서 패러디되는 장면은 근서 작가의 <내가 키운 S급들> 67화에 나온 주인공 형제 간의 대화(“형 진짜 내가 미치는 꼴 보고 싶어?”)로, 브로맨스적 묘사로 인해 남성향 웹소설 독자들에게 강한 반발과 저항을 받은 장면이다.

59) 코플런드, 앞의 책, 159-213쪽.

예되고, 이들의 커뮤니티는 외로운 네트워크적 관계성만을 가지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하남자〉의 주인공과 소환인들 역시 ‘시스템’을 매개로 관계를 맺으며, ‘시스템’이 부여한 탑 등반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한에서만 관계가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자〉에서 주인공과 소환인들의 우정이 완전히 표면적이고 도구적인 것은 아니다. 탑 등반은 이들이 함께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서사가 진행될수록 탑 등반과 성장 자체가 이들의 제1목표가 아님이 드러난다. 주인공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이 소환한 이들, 즉 자신과 관계 맺은 이들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다. ‘성장’은 이들을 묶어두는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일 뿐, 감정의 궁극적인 토대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서사 후반부에는 주인공과 소환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마을을 건립하며 일정한 유대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이러한 관계 양상은 과거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이들이 보여주었던 진득한 브로맨스와도 다르고, 여성 영웅서사 특유의 가족적·수평적 관계성과도 구별된다. 나아가 현실의 비헤게모니적 남성들이 맺는 파편화된 네트워크와 일정 부분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현실의 커뮤니티처럼 부정적 정동에 의해 굴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지닌다. 오히려 이 관계는 완전하고 끈끈한 전통적 공동체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느슨하고 안전한 우정 공동체’를 형성해 낸다. 결국 〈하남자〉에 나타난 주변화된 남성성은 생존 위협과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향하지도 않고, 그것에 저항하지도 않는 청년 남성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우정과 연대의 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 과정을 재현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10년의 시차를 두고 재현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노동과 성취, 이성애적 친밀성, 동성사회적 유대라는 세 가지 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 구분              | 〈템빨〉                                                                                                                         | 〈하남자〉                                                                                                                                                    |
|-----------------|------------------------------------------------------------------------------------------------------------------------------|----------------------------------------------------------------------------------------------------------------------------------------------------------|
| 노동과 성취의 연관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력-성취’의 인과율을 믿고 고된 노동(행복한 노가다)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로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자본주의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노력-성취’ 인과성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경쟁과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지향형 주체</li> </ul>                                     |
| 이성애적 친밀성의 재현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혐오의 대상→성공의 보상으로 변화</li> <li>• 여성은 성장에 기여하는 유능한 조력자이자 자원으로 기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 성취의 보상으로 재현되지 않음</li> <li>• 위험 회피적 경향에 따라 불안정한 낭만적 관계를 유예함</li> </ul>                                       |
| 동성사회적 관계 재현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고한 이성애적 안전망(하렘)을 바탕으로 남성 멘토/라이벌과 끈끈한 연대와 애정을 나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에 오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느슨하고 얇은 수준의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 형성</li> </ul>                                                        |
| 남성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화된 남성성×공모적 남성성의 결합</li> <li>• 비헤게모니적 위치에서 출발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하는 상승구조 서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형된 주변화된 남성성</li> <li>• 금융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교차되어 헤게모니적 남성성 획득 경쟁 자체를 기각, 주변적 위치를 유지하고, 그 위치에서 새롭게 젠더 위계를 형성</li> </ul> |

〈표 3〉 분석 결과 요약

두 작품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재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많은 선행연구와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헤게

모니적 남성성을 지향하고 이에 공모하는 주변화된 남성성으로서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이었다. <템빨>에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중층적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총체적 열등함으로 주변화된 동시에, 노력-성취의 인과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반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주변화된 남성성으로서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있었다. <하남자>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공모하지도, 저항하지도 않는 조금 다른 주변화된 남성성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재현 양상은 오늘날 청년 남성 문화를 이해할 때 주로 동원되는 결핍·분노·혐오의 언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하남자>에서 재현되는 새로운 남성성은 복합적인 사회 변화의 맥락 위에 놓여 있다. 오늘날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여성 및 성소수자의 권리 투쟁, 해로운 남성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비판 등 다양한 방향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쟁 질서의 심화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가닿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을 점점 더 늘리기에, 노력의 양에 비례하여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상대적 가치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닿기 힘들 뿐 아니라 가닿았을 때의 효용 역시 저하됨으로써, 규범으로서의 권위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의 한 갈래로 <하남자>의 주인공과 같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사명이 '투자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해당 규범으로부터 발을 빼는 냉소적 이탈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가닿기 힘든 체제에 집합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적절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체제를 손절하며, 주어진 조건 안에서 큰 성장이나 미래를 바라지 않고, 그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위험한 문제상황을 개인적으로 해소하는 생존 방식이자 삶의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생

존 방식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방식에 공모하거나 저항하지 않으며, 지배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변적 위치를 유지하며 새롭게 젠더 위계를 정립한다. 그런 점에서 〈하남자〉 서사의 인기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잔인성을 경험한 남성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그것에 나름의 '남성성'으로서의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에 많이 재현되었던 비헤게모니적 남성성 이외에 사회역사적 토대의 변화에 따라 남성성이 다각적으로 분화하는 경향의 징후로서 냉소적이면서도 위험회피적인 양상을 보이는 주변화된 남성성을 포착한 데 있다. 이러한 남성성은 현재로서는 성별 위계 질서에 대한 저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여성 대상화나 동성애 혐오의 문제를 여전히 내포한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젠더 경계 형성 및 배제의 문제에는 여전히 공모한다. 다만, 그 공모 방식이 이상적 남성성 규범을 옹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남자〉에서 재현되는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규범 자체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남성/여성의 젠더 경계 유지에는 공모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변화된 남성성'이라기보다는, '금융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교차하여 젠더 차별의 방식을 변형시킨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두 편의 웹소설 사례만을 중심으로 비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양상을 분석하였기에, 도출된 결과를 사회 전반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문화 텍스트 사례를 바탕으로 시대적 조건에 따른 남성성의 궤적을 추적하는 통시적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꾸찌꾸찌, 〈하남자의 탐 공략법〉, 문피아, 2024-2026.

박새날, 〈템빨〉, 카카오페이지, 2014-2024.

### 2. 논문과 단행본

권김현영, 「근대 전환기 한국의 남성성」,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김명수, 「급진적 파이어 투자자의 탄생 : 한국 파이어 운동의 자산전략과 도덕 경제」, 『경제와사회』 제144호, 비판사회학회, 2024, 307-354쪽.

김수아, 「2030세대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성 규범: 반 페미니즘 정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9권 4호,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2, 159-195쪽.

김수아·홍종윤, 「한국 힙합에 나타난 루저 남성성 담론과 여성 혐오: 블랙넛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제18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16, 60-99쪽.

김엘리,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제36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20, 139-173쪽.

김예니, 「역하렘물과 미러링 전략의 의미 -『하렘의 남자들』과 『역하렘 게임 속으로 떨어진 모양입니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5, 5-31쪽.

김학준, 『보통 일배들의 시대: '혐오의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월의봄, 2022.

문은혜, 「게임판타지 웹소설의 장르관습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183-213쪽.

박지희, 「한국 웹소설에 나타나는 하이포주체 연구」, 『국제어문』 제104호, 국제어문학회, 2025, 31-55쪽.

박형신·정수남, 『로맨스 이그니마: 로맨스의 형성과 사랑 관행의 변화』, 한울, 2024.

백문임, 「브로맨스 vs '형제' 로맨스: 포스트 밀레니엄 남성은 친밀성을 꿈꾸는가」, 『그린 남성은 없다』, 오월의봄, 2017.

북마녀, 『억대 연봉 부르는 웹소설 작가수업 :북마녀의 베스트 작가 실전 트레이닝』,

- 허들링북스, 2021.
- 송가운, 「신무협 웹소설의 남성향/여성향 혼종적 서사 구조에 대한 독자 반응 경합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 안상욱,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안희제, 『증명과 변명: 죽음을 계획한 어느 청년 남성이 남기는 질문들』, 다다서재, 2024.
- 엄혜진, 「여성의 자기계발, 소명의 고안과 여성성의 잔여화」, 『페미니즘 연구』 제16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6, 215-265쪽.
- 이용희, 『#판타지 #게임 #역사』, 요다, 2021.
-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 정희진, 「한국 남성의 식민성과 여성주의 이론」,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 조형래, 「게임 판타지 웹소설의 정동적 메커니즘: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본 후기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재구성」, 『동서인문학』 제69권, 인문과학연구소, 2025, 161-189쪽.
- 홍찬숙,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 세창, 2022.
- 게일 캐리거, 『여자는 우주를 혼자 여행하지 않는다: 여성 영웅 서사의 세계』, 송경아 역, 원더박스, 2025.
- 레이원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이매진, 2013.
- 수전 팔루디, 『스티프트: 배신당한 남자들』, 손희정 역, Arte(북이십일 아르테), 2024.
-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여성, 신체 그리고 시초축적』, 황성원·김민철 역, 갈무리, 2011.
- 알리 러셀 홀쉴드, 『도둑맞은 자부심: 상실감, 수치심 그리고 새로운 우파의 탄생』, 이종민 역, 어크로스, 2025.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B. 게른스하임,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권기돈·강수영 역, 새물결, 2002.
-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

권오현 역, 이학사, 2014.

에바 일루즈,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김희상 역, 돌베개, 2013.

제인 맥고니걸, 『누구나 게임을 한다』, 김고명 역, 알에이치코리아, 2012.

제임스 S. 코플런드, 『젊은 남성은 왜 분노하는가?: 상처 입은 남성과 극우의 탄생』, 송은혜 역, 바다출판사, 2025.

지그문트 바우만, 『사랑하지 않을 권리 리퀴드 러브: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권태우·조형준 역, 새물결, 2013.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함춘성 역, 비즈앤비즈, 2013.

Salzinger, L., "Re-marking men: Masculinity as a terrain of the neoliberal economy", *Critical Historical Studies* Vol. 3, No. 1, 2016. pp.1-25.

Yang, Y., "What's Hegemonic about Hegemonic Masculinity? Legitimation and Beyond", *Sociological Theory* Vol. 38, No. 4, 2020. pp.318-333.

## Abstract

### Aspects in Non-Hegemonic Masculinity Represented in Male-Targeted Web Novels - Focusing on the Reconfiguration of Labor, Intimacy and Homosociality

Kim, Ah-Ran(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apture the multifaceted aspects of non-hegemonic masculinity represented in male-oriented web novels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implications of subjects who come to acquire new forms of legitimacy.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ero narratives serialized ten years apart—<Overgeared> and <The Tower Strategy of a Loser Man> (hereafter <Ha-namja>)—featuring protagonists with non-hegemonic masculinity. The analysis focuses on three dimensions: (1) perceptions of labor and achievement, (2) the position of heterosexual intimacy, and (3) forms of homosocial bonding.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tagonist of <Overgeared> exemplifies a “complicit-marginal masculinity” that seeks upward mobility toward hegemonic masculinity by presupposing the causal link between effort, achievement, and intimacy. Here, intimacy functions as a reward for achievement, while male bonding takes the form of bromance grounded in a secure heterosexual framework.

In contrast, the protagonist of <Ha-namja> exhibits a “transformed marginal masculinity” that disengages from hegemonic competition, prioritizing risk aversion and efficiency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Intersecting with financial-capitalist rationality, this orientation constructs new masculine boundaries through the suspension of intimacy and the formation of strategic,

network-based relationships. This study redefines this phenomenon as a 'marginalized masculinity that intersects with the rationality of financial capitalism to transform the modes of gender discrimination'. These shifts suggest that, in a context where the normative authority of hegemonic masculinity is weakening, young men are exploring alternative ways of living through cynical disengagement and risk management.

(Keywords: Non-hegemonic masculinity, Transformed masculinity, Male-oriented web novels, Labor and achievement, Intimacy, Homosociality)

논문투고일 : 2026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 2026년 5월 31일

수정완료일 : 2026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 2026년 6월 11일